

광주FC ‘연대기여금 미납’ 파장...FIFA 결정에 달렸다

연대기여금 420만원 반환 몰라 미납
직원 휴직 FIFA 제재 통보 확인못해
올해 등록 10명 논란...포항 이의제기
ACLE 등 몰수패 가능성에 판단 촉각

광주FC의 ‘연대기여금 미납 사태’ 논란이 일 파면과다. 광주가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선수 등록 금지 제재를 받은 것을 모른 채 선수 등록하고 K리그와 코리아컵,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까지 소화한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선수 무자격과 이에 따른 몰수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는 “행정 착오이며 고의성이 없다”고 해명했고 대한축구협회 역시 “고의 없는 실수이며 선수 무자격 판단은 무리”라고 밝혔다. 하지만 포항 스틸러스가 지난 18일 경기에 대해 무자격 선수를 확인해달라며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고 ACLE 경기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성도 있어 FIFA가 이번 미납 사태에 대해 업무미숙 해프닝으로 판단할지, 고의적 미납이라고 판단해 징계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큰 금액도 아닌데 연대기여금 미납 이유

FIFA는 연대기여금 제도를 운영한다. 선수가 국제 이적을 할 때 만 12~23세 시절 소속됐던 팀에 이적료 일부를 분배하는 제도다. 광주가 미납한 연대기여금은 아시아에 대한 것이다. 많은 외국인 선수를 영입해왔던 광주가 연대기여금을 모를 리 없다.

문제가 된 것은 연대기여금 납부제도가 2023년 바뀌면서다. 이전까지는 구단 사이에 직접 연대기여금이 오갔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는 구단으로 인해 말썽이 생기자 FIFA가 직접 나섰다. FIFA는 선수 이적과 등록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보상금의 산출과 지급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클리어링 하우스’ 제도를 시행, 연대기여금을 배분했다.

2023년 알바니아 국적의 아시아를 영입한 광주는 이에 대한 연대기여금 약 3,000달러(약 420만 원)를 배정받았고 지난해 8월 송금했다. 그런데 이 송금이 반환됐고 광주는 한 달 후인 9월에 다시 송금했으나 이 역시 반환됐다.

문제는 이 반환 이후다. FIFA는 연대기여금이 미납되자 지난해 12월 광주FC에 대해 제재금 5,000스위스프랑(약 840만 원)과 함께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하겠다고 이메일로 통보했다. FIFA는 그래도 광주의 회신없이 징계

를 확정했고 해당 징계 공문은 아시아축구연맹(AFC)을 통해 대한축구협회에 전달됐다.

하지만 광주는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송금 반환 직후 담당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으면서 방지됐다. FIFA의 이메일도, FIFA의 이메일을 전달받아 다시 광주로 보낸 대한축구협회의 이메일도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메일로 보내졌고,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다.

선수등록 금지를 알지못했던 광주는 올 시즌을 앞두고 10명의 선수를 등록해 K리그와 코리아컵, ACLE를 치렀다. 영입 과정 중 해외에서 데려온 선수가 있었다면 FIFA TMS(Transfer Matching System)가 작동되지 않아 인지할 수 있었겠지만, 광주의 올 시즌 영입은 모두 국내 구단 간 거래로 이뤄지면서 선수등록금지를 알지 못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커뮤니티를 통해서다. 한 축구팬이 FIFA 홈페이지 광주에 대한 선수등록 금지 징계 공고를 보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이슈가 됐다. 뒤늦게 연대기여금 미납 사실을 파악한 광주는 미납된 연대기여금과 제재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해외 송금 특성상 즉시 반영되지 않아 FIFA의 확인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FC 관계자는 “지난주 초 상황을 인지하자마자 벌금을 먼저 납부했고 연대기여금은 또 송금이 잘 안돼 FIFA에 문의하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으나 19일 최종적으로 완료했다. 지난해 송금이 반환된 것은 구단의 실수인지 은행측 오류인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해외 송금은 시일이 소요된다. 21일쯤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FIFA 징계는 송금 확인 시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ACLE·K리그 경기 결과 불똥 튀까

공식적인 이의도 제기됐다. 지난 18일 광주에 0-1로 패한 포항 스틸러스는 이른날 ‘무자격 선수 출전’을 이유로 연맹에 공식 이의제기 공문을 제출했다. 올 시즌 광주가 등록한 선수에 대한 자격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다. FIFA의 선수등록 금지 상태에서 올 시즌 등록된 광주 선수는 경기에 나설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이의 제기다.

상금 26억원을 벌어들인 ACLE로도 불똥이 튀 수 있다. ACLE에서 광중에 패한 팀이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사한 사례로 K리그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연대기여금을 누락한채 선수를 등록해 몰수패를 당한 전례가 있다. ‘기적’이라 불리던 행보가 순식간에 위기로

바뀔 셈이다.

고의성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광주는 아마추어적인 행적으로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FIFA의 징계 공문은 통상적으로 협회와 구단 양측에 동시에 전달되지만, 협회 내부 담당자가 이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이메일을 구단에 전달하고 확인하지 않았다. 올 시즌 광주의 선수등록도 승인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금까지 광주 소속 해당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로 판단하기는 무리다”며 “기존 경기 결과를 유지하고 리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판단은 FIFA와 AFC의 몫이다. 관련 사실을 양측에 전달하고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포항의 이의제기에 대해 법무팀이 검토 중이다”며 “FIFA나 AFC의 판단은 참고사항일 뿐 연맹 자체 규정에 따라 판단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 안으로 내부 법무팀 검토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광주의 경위서 제출에 따라 상법위원회 회부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며 “최종 결론이 이번 주 안에 나가는 어렵고 다음 주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혜원 기자

광주FC 박인혁·변준수 K리그1 14R 베스트11

전남 K리그2 12R 베스트팀·매치

광주FC 공격수 박인혁과 수비수 변준수가 하나은행 K리그1 2025 14라운드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박인혁은 지난 18일 포항 스틸러스와의 경기에서 후반 44분 결승 헤더골을 장식하며 팀의 1-0 승리를 견인했다. 변준수 역시 견고한 수비 라인을 형성하며 포항의 공격을 막아내는 등 맹 활약했다.

베스트11은 안테르손(수원FC), 독스(서울·이상 FW), 조진혁(강원), 박진섭(전북), 루안(수원FC), 전진우(전북·이상 MF), 최규백(수원FC), 서명관(울산·이상 DF), 안준수(수원FC·GK)가 선정됐다.

MVP는 안테르손이다. 안테르손은 지난 18일 수원FC와 대전의 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수원FC의 3-0 승리를 이끌었다. 안테르손은 후반 37분 최규백의 선제골을 도운 데 이어, 후반 44분과 경기 종료 직전 연속골을 터뜨리는 만점 활약을 선보였다.

수원FC는 다양한 포지션의 선수들이 라운드



박인혁 변준수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리며 K리그1 14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선정됐다. K리그1 14라운드 베스트 매치 또한 수원FC와 대전의 경기다.

한편, K리그2에서는 전남 드래곤즈가 18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5 12라운드 충북정주전에서 4-1로 승리하며 베스트 팀과 베스트 매치로 선정됐다. 이날 경기에서 발디비아가 전반 29분 선제골을 넣었고, 김예성이 후반 24분 추가골을 기록했다. 이어 김도윤이 후반 44분과 추가시간에 연속골을 넣으며 팀 승리에 쐬기를 박았다.

전남은 K리그2 베스트11에 김도윤(FW), 김예성, 발디비아(이상 MF) 등이 선정됐다. 조혜원 기자



신유빈-유한나 “찰떡 호흡 맞춰요”

20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루사일 스포츠아레나에서 열린 2025 국제탁구연맹(ITTF) 세계선수권대회 여자복식 32강에서 신유빈-유한나 조가 조지나 포타(헝가리)-사라 드 누트(룩셈부르크)를 상대로 경기하고 있다. 신유빈-유한나조가 3-0으로 이겼다. 연합뉴스

제34회 전남축구협회장기 동호인 축구대회 성료

제34회 전남축구협회장(회장 신정식)기 동호인축구대회에서 50대부 광양시, 60대 1부 해남군, 2부 목포시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7~18일 보성군 벌교생태공원 축구전용구장 등 일원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50대부 18개팀, 60대부 14개팀 등 32개 동호인 축구팀 임원·선수단 1,000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전남축구협회 주최·주관, 전남도·전남도의회·전남도체육회·보성군·보성군의회·보성군체육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50대부 경기는 4개조 4~5팀씩 나눠 17일 팀당 2경기씩 리그제로 경기를 진행해 순위를 결정한 다음 각 조 1·2위가 8강에 진출한 뒤 18일 8강전부터 결승전까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회 결과 광양시가 결승전에서 순천시와 2-2로 비긴 뒤 연장전이 승부차기에 들어가 4-2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목포시·해남군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60대부는 4개조 3~4팀씩 나눠 17일 팀당 2경기씩 리그제로 경기를 진행해 각 조 1위가 1부 4강, 각 조 2위가 2부 4강에 진출한 뒤 18일 1·2부로 나눠 각 부별 4강전부터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1부는 해남군이 결승전에서 영광군을 5-3으로 꺾고 우



동호인축구대회 50대부 우승을 차지한 광양시 선수단. 전남축구협회 제공

승했으며 순천시와 담양군이 공동3위를 차지했다.

2부는 목포시가 보성군을 4-0으로 누르고 우승 했으며 여수시와 완도군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최우수선수상은 50대부 광양 김영기·60대 1부 해남 최정섭·2부 목포 강대용 선수, 우수선수상은 50대부 순천 서철원·60대 1부 영광 장일수·2부 보성 김대중, 심판상은 이영중 대한축구협회 1급심판이 수상했다.

신정식 전남축구협회장은 “전남지역 축구 동호인들의 많은 참여로 축구 발전에 기여하게 됐다”며 “지역 동호인들의 많은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원 기자

“투명·공정한 협회 운영...발전·도약 이뤄내겠다”

최철원 광주시승마협회 회장 취임

“광주승마협회를 위해 (최) 회장의 말과 함께, (철)마처럼 달리는 (원)대한 광주 승마인의 꿈을 세계로! 미래로! 펼치겠습니다.”

광주시승마협회 제3대 회장에 최철원 회장이 공식 취임했다.

광주시승마협회는 지난 19일 남구 어반브룩 3층 어반리움홀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한 승마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철원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최 회장은 취임사에서 “승마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강인한 체력, 날카로운 집중력, 그리고 말과의 완전한 호흡을 통해 만들어지는 인간과 동물간의 최고의 협업”이라며 “이처럼 위대한 스포츠를 통해 광주의 이름을 전국에, 세계 무대에 당당히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 승마인들의 소중한 자산을 영주 승마장에 평상시 강습 대기 인원이 15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크다”며 “승마협회와 광주시체육회가 힘을 모아 승마인 저변확



광주시승마협회는 최근 남구 어반브룩 3층 어반리움홀에서 최철원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광주시승마협회 제공

대를 통해 생활체육, 입시 체육, 엘리트 체육까지 동반성장 발전과 함께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2004년 승마와 처음 인연을 맺은 최 회장은 워블러드와 루시타노를 자마로 두고 해남지구력대회 10km에 출전해 1등, 장애물코스에 출전해 무감점 완주, 익산 지구력 대회 20km에 출전하는 등 열정적인 승마인의 삶을 살고 있다. 최 회장 체제로 새로 출범한 광주시승마협회 집

행부는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승마인 60%, 비승마인 40%로 구성됐다. 특히 전국 최초 현역 선수 2명을 집행부에 합류시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최 회장은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회를 운영하겠다”며 “광주승마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조혜원 기자